# 상월결사, 교구본사 걷기순례로 이어진다

## 고창 선운사 11월 28일 본말사 순례 진행

고창 선운사=노덕현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뤄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화목하며,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나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회향한지 한 달이 지난 11월 28일. 만행결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이 조계종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11월 28일 본·말사 걷기명상 성지순례를 개최한 것이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동안거 후 걷기순례, 상월선원 결사대중이 내년 10월 경 삼보사찰 순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코로나 극복과 국민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걷기순례란 새 문화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선운사가 28일 개최한 걷기순례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함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등 상월선원결사대중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등 호남사찰 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선운사 신도회,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 불자대중 50여 명도 함께했다.

당초 선운사 측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 정신을 이어 본사차원서 매월 1회 걷기명상 순례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11월 순창 강천사에서 만일사까지 70여 스님들이 걷기순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선운사 측은 10월 준비모임 성격으로 내소사서 월명암까지 걸으며 이번 순례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과 참당암을 순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순례에 앞서 인사말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오늘 자비순례는 도량내 머물던 수행과 포교가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16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불교는 오늘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일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채 산중에 머무르는 불교가 되지 않았나 되짚어 본다"고 자성의 발언을 이어갔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선운사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대중들이 선운사와 도솔암을 잇는 산길을 걷고 있다. 선운사 측은 선운사 동백꽃으로 장식된 '자비순례 선운사' 모자를 준비해 이번 본말사 순례가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의 연장선임을 밝혔다.

**본말사 불자대중 50여명 참석**
**상월결사 대중도 함께 참여해**
**도솔암서 코로나 극복 기도와**
**참당암서 선원 수행정진 응원**
**지역사회 애환 함께 어루만져**

경우 스님은 "우리는 산중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지역민의 삶속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도량에서만 이뤄졌던 나를 위한 기도와 수행을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와 수행으로 바꾸고자한다"고 발원했다.

순례 대중들은 발원문 낭독을 마치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선운사 주차장에서 도솔암까지 산길을 나섰다. 총 10여 km의 짧은 거리지만 추운 날씨와 산길임을 감안해 자비순례와 달리 비교적 느린 속도로 순례는 진행됐다.

3km를 걸었을까. 도솔암 미륵불로 일컬어지는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거대한 마애불 앞에서 참배한 순례대중은 막간 휴식시간 동안 주지 경우 스님의 마애불에 대한 설명과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의 결사의 불교사적 의미를 경청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순례대중들은 마애불 위에 자리한 도솔암 내원궁을 참배했다. 결사대중은 도솔암 내원궁으로 향하는 108계단도 코로나 사태로 시름하는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뜬히 올랐다. 순례대중은 내원궁에서 코로나 극복을 바라는 일심으로 참배하고 선운사 선방이 위치한 참당암을 거쳐 선운사 공양간에서 함께 대중공양을 했다.

이날 걷기 순례에 참여한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에 동안거 해제 후 해남 걷기순례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백양사와 송광사 주지 스님 등도 관심을 표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수행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이어져야 한다. 걷는 수행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수행문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에 25개 교구본사가 있기에 상월선원 결사대중과의 순례로 사찰순례의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순례에 참여한 대중들은 앞으로 진행될 사찰에서의 걷기순례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박정선 고창시니어클럽 시설장도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순례로 부처님 가피가 내려 하루 빨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국가유공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까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새롭게 조정·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월에 열린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종법이 개정됐다.

그간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은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국가에서 정하는 통상적 기준으로 반영돼 왔다. 하지만, 국가 기준이 변경되고 대상에 대한 표현이 바뀔 때마다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면제 대상 기준을 각 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면제 대상 변화로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유공자다. 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면제된다.

기존의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장애인 대상 면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보호자 1인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학생인솔을 위한 초·중·고 교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 관람객 인솔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도 입장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7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보유 사찰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살피고 결정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보유사찰위, 12월 1일 면제 기준 조정**
**민주유공자·기초수급자 등 입장료 면제 가능**
**임산부도 혜택…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 "도난 성보 환수 노력에 감사"

## 원행 스님, 표창 수여
## 안상돈 변호사 등 5명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의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공로자에게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표창패는 KT 법무실장 안상돈 변호사가 받았다. 안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소송에서 피해사찰들을 변호하며 도난 문화재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표창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상우 경위·박병호 경위·이경환 경사·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단장이 받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소중한 성보이자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부당한 방법에 의해 도난당했다. 이를 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도와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난 문화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처음부터 혜일 스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셨고 경찰청, 문화재청 관련 실무자들도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도난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 "韓日불교 교류 통해 양국 관계 회복"

## 원행 스님,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행 스님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원행 스님은 "2020년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4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에서 성대하게 대회를 진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렵게 됐다"면서 "한·일 양국에 얽혀있는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불교계의 교류 활동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도미타 코지 대사는 "사회문제, 평화, 환경 등의 의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한·일 불교계가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많은 소통과 대화가 이어지기를 부탁드린다. 대사관에서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온택트 세미나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송출 2020.12.14 |월| 2시
BBS불교방송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BBSKOREA)
주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BBS불교방송

주제 1 전통사찰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발제 :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토론 : 김정원((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연구원)

주제 2 순례관광 유사사례분석(국내, 해외, 이웃종교)
발제 : 박부영(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토론 : 정란수(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주제 3 템플스테이와 사찰순례연계 관광 자원화 방안
발제 : 김상태(한국관광문화연구원 초빙 석좌 연구위원)
토론 : 김일중(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TF팀 차장)

BBS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시 시청 가능합니다.
BBS 불교방송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